

국어 학교문법의 형성에 관한 연구

-중·고등학교 학교문법의 통일을 중심으로-

정 달 영*

차 례

1. 들머리
2. 국어 학교문법 통일의 형성
3. 국어 학교문법 통일을 위한 세부 내용 체계
4. 마무리

1. 들머리

이 글은 중·고등학교 국어 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학교문법의 통일 형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의 학교 문법 통일의 목적과 필요성을 알아본다. 그리고 국어 학교문법의 통일 배경과 그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 뿐만 아니라, 국어 학교 문법 통일안의 내용 체계를 알아본다. 국어 문법 통일안이 마련된 이후에,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학교문법의 내용은 몇 차례 수정·보완하는 변화를 겪어왔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국어 문법 통일안이 형성된 이후의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본고의 연구 범위가 국어 학교문법의 통일안이 어렵

*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chdy@daejin.ac.kr

게 마련되기까지의 배경과 그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국어 학교문법의 통일안이 형성될 당시의 내용 체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요즘 한문과 교육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문 학교문법 통일안을 마련하는 데에 타산지석(他山之石)의 도움으로 삼고자 한다.

2. 국어 학교문법 통일의 형성

이 장에서는 학교문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본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학교문법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문법의 뿌리가 되는 전통 문법(traditional grammar)은 그리스 시대부터 싹트었으며, 로마 시대의 라틴 문법에서 그 기틀이 확립되었다. 그 뒤 이 문법은 각 나라에 번져서 세계의 술한 나라말에 전통 문법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통 문법은 많은 나라에서 국가 공용어의 언어 규범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이처럼 전통 문법은 각 나라의 언어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이 되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이것을 실용 문법(practical grammar)이라 하기도 한다. 그런 문법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기본 교과목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일반교양을 위하여 전통 문법 또는 실용 문법을 가르치는 학교 문법(school grammar)이 나타나게 되었다.

학교 문법(school grammar)이란 일반국민이 언어생활에서 필요한 문법 지식이거나 언어 규범을 서술한 것이다. 대개 말은 지방에 따라 또는 계층에 따라 달리 쓰이는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그 차이가 점점 커져서 나라의 시책을 널리 알리는 데에 지장을 주게 된다. 또 어떤 계층에서는 바른 말이나 고운 말 대신에 저속한 말들을 퍼뜨리는 수가 있어서 나라말의 질서가 문란하게 된다. 그래서 각 나라의 정부에서는 국가 표준어 또는 공용어를 정하고 저속한 말을 억제하고 곱고 품위 있는 말을 쓰도록 장려한다. 이런 국가 언어 시책의 기본 교육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 학교 문법이다. 이것은 대개 중·고등학교 국어 교육의 한 가지로 가르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학교 문법은 국민의 바람직한 언어생활에서 꼭 알고 실천하여야 할 최소한도의 문법 규범이다.

그런데 학교 문법서에는 여러 가지 문법 용어가 나타나 있고 얼핏 보아 쉽게 익히

기 어려운 규칙이나 규정들이 서술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학교 문법에 쓰여 있는 문법 내용은 사실상 우리 말토박이들이 간직하고 있는 언어 능력 곧 내재 문법의 반영이다. 언어 능력의 실현을 통하여 나타난 문법 현상의 일부를 서술한 것이 학교 문법이다. 이는 물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다. 다만 그것을 문법 용어 등을 써서 서술하였기 때문에 어렵게 보일 뿐이다.

2.1. 학교문법 통일의 목적 및 필요성

국어 학교문법은 중·고등학교에서 지도하는 국어 문법의 체계와 용어를 통일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국어 학교 문법의 통일 문제는 국어 교육에 있어서 오래 전부터 과제로 되어 있던 터이므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되어 왔다. 이미 1962년 11월 국어 문법 지도 지침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교 문법의 통일은 그 성과를 피하기 위하여 학교문법 교재의 내용 체계를 일원화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문법 연구는 그 종류에 따라 각각 방법론을 달리할 수 있다. 학교 문법은 그 성격으로 보아 어떠한 제약을 가하더라도 문법의 체계에 있어서 통일을 기하자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현장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정한 계획과 조건 밑에 문법을 통일한다면 그 교육의 효과를 위하여 일보 전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2. 학교문법 통일의 배경과 형성 과정

여기서는 국어과 교육에서 국어 문법이 정식 교과목으로 다뤄지고, 학교문법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통일안을 형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2.2.1. 학교문법 통일의 배경

국어문법이 정식 교과 과목으로 채택된 것은 1895년(고종 3년)에 공포된 소학교 교칙 대강(小學校校則大綱) 제3조에 규정된 소학 고등과가 처음이었다. 이어, 중학 과정에도 정식 교과로 채택되었으나, 구체적으로 누구의 저술이 어떤 과정에서 사용

되었는가 하는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다.¹⁾

1895년부터 국권이 상실되기까지는 현재 유인물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 유길준의 '조선문전'과 '대한문전'류, 김규식의 '대한문법(유인물)', 유길준의 '대한문전(1909)', 최광옥의 '대한문전(1908)', 주시경의 '대한국어문법(1906, 유인물)', '초등국어문전(유인물)', '국어문법(1910)' 등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국권 상실 후에는 교과목의 이름이 '조선어'로 바뀐에 따라 그 이름도 '조선'이 붙은 문법서가 출간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문법 교과서는 1938년 조선어 과목이 폐지될 때까지 나왔는데, 검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다.²⁾ 그리고 이 당시의 문법 교육은 형식적인 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실질적인 문법 교육은 8·15 광복 후부터 비롯된다.

광복 직후 몇 년 동안에는 광복 이전에 나왔던 문법서의 이름을 바꾸거나 약간의 개편을 거쳐 현실적 요구에 충족하는 수밖에 없었다.³⁾

그러나 1949년 7월, 문법 통일을 위한 첫째 번 시도로서 292개의 문법 용어를 제정하고 같은 해 9월부터 검인정제를 실시하였다. 확정될 당시 문교부의 문법 용어는 우리말로 된 것과 한자음으로 된 것의 두 가지로 인정하고, 그 중의 한 가지를 일관성 있게 쓸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대조해서 표시해야지 혼용은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문법 용어는 국어 문법뿐만 아니라, 외국어 문법에도 쓰일 수 있게 만들어졌다.⁴⁾ 광복 이후에 나온 문법서들은 대부분 중학 과정과 고등 과정이 분리되지 않은 것이었다.

1955년 8월, 새로운 교과 과정의 공포에 따라 정식으로 중학교용과 고등학교용이 나누어져 편찬되었다. 1956년부터 나온 문법은 중학교용에 저서 8종⁵⁾, 고등학교

1) 다만, 김희상의 '초등 국어 어전(1909)'이 당시 학부(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검정을 거쳐 소학교에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전할 뿐이다.

2) 이 중에서 중학교 과정(당시의 학제로는 고등 보통 학교)에서 많이 사용된 것은 이규영의 '현금 조선 문전(現今朝鮮文典)', 이규방의 '신찬조선어법(新撰朝鮮語法)', 이완용의 '중등 교과 조선어 문전', 최현배의 '중등 조선 말본', 중등 교육 조선어법', 박상준의 '개정 철자 준거 조선어법', 박승빈의 '간이 조선어 문법', 심의린의 '중등학교 조선어 문법' 등을 꼽을 수 있다.

3) 이규방, 최현배, 김윤경, 이상춘의 저술들이 다시 얼굴을 내밀었다. 특히, 최현배는 '중등 조선 말본'의 교수 참고서를 내놓기까지 하였다. 정철모, 박창해, 김근수, 장하일, 박태운 등은 새로운 교과서를 쓰기도 하였다.

4) 당시 이에 준거하여 나온 문법 교과서는 최현배, 장하일, 정인승, 이희승, 이인모 등의 저서 5종이었다. 정인승은 앞의 최현배와 같이 교사용 참고서를 내놓았다. 그리고 오늘날 한문과 경우에도 한문 문법 용어는 국어문법 용어를 준용하여 쓰고 있는데, 아마도 이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5) 장하일, 이승년, 김윤경, 정인승, 이희승, 최현배, 최태호, 김민수 외 3명 등의 저서 8종이 이에 해당한다.

교용에 저서 6종이었다.⁶⁾ 이 중에서 정인승은 중등 문법과 고등 문법에 걸쳐 교사용 참고서를 내놓았고, 이승녕은 '새 문법 체계의 태도론'을 씀으로써 자신의 문법 이론을 뒷받침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에 걸쳐 여러 종류의 문법 교과서가 출현하여 국어 문법 교육은 제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교수 경험의 깊어지고 상급 학교 입학시험, 특히 대학 입학시험에서 국어 문법 교과서의 능력을 측정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자, 문법 체계와 문법 용어에 대한 통일의 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⁷⁾

2.2.2 학교문법 통일의 형성 과정

1) 통일 문법에 의한 검인정 교과서의 출현

1960년대부터 문법 통일을 촉구하는 소리가 높아지자, 문교부에서는 1962년 3월부터 약 1년에 걸쳐 13명의 준비 위원으로 하여금 시안을 작성시키면서, 11월에는 '중·고등학교 국어 문법 지도 지침'이란 책자를 펴냄으로써 학교 문법의 통일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안 일부에 대한 반대로 말미암아 국어과 교육과정 심의회는 1963년 4월 8일 학교 문법 통일을 위한 16명의 전문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였다.⁸⁾ 당시 문교부 국어과 교육과정 심의회가 중심이 되어 1963년 3월 18일부터 동년 6월 18일 사이에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듭한 끝에, 1963년 5월에는 드디어 통일안이 작성되고, 학교문법 통일안이 같은 해 7월 25일에 확정 공포되었다. 이처럼 전문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숙의한 끝에 문법 체계의 통일안으로 품사 분류를 아홉 개로 정했으며, 문법 용어 통일안으로 순 우리말로 된 것과 한자음으로 된 말을 절충하는 원칙 밑에 새로운 문법 용어표가 작성되었다.⁹⁾

통일안의 공포 이후, 몇 년 동안 지정사 '이다'와 문법 용어를 둘러싸고 이른바 '말

6) 이승녕, 김윤경, 정인승, 최현배, 이희승, 김민수 외 3명 등의 저서 6종이 이에 해당한다.

7)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쓰인 것이 김민수 외 3명의 문법이었다. 다른 검인정 교과서는 1956~1957년 사이에 나왔는데, 이 교과서가 1960년에 나온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현실적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8) 이로 말미암아 16명으로 구성된 전문 위원회는 4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사이에 12차례의 회의를 거듭하기도 하였다.

9) 품사 체계는 9품사 정도만 통일되었으나, 나머지는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문법 용어는 음성론과 구두점만 우리말식 용어가 원칙적으로 채택되고, 품사론과 문장론은 한자어 용어가 채택되었다.

본파'와 '문법파'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¹⁰⁾ 이 체계에 따른 중등 문법서는 1966년에, 고등 문법서는 1968년에 나오으로써 통일된 체계와 용어에 의한 문법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1964년에는 한국 국어 교육 연구회에서 '중학 국문법'과 '고등 국문법'을 펴내기도 하였는데, 이에 의해 통일 문법이 공포된 1963년부터 새 교과서가 나온 1965, 1967년까지의 공백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었다.

1966년에 나온 중등 문법의 교과서는 16종이었으며¹¹⁾, 고등 문법의 교과서는 13종이었다.¹²⁾ 문교부의 학교문법 통일안이 9품사였음에도 저자 중에는 지정사를 더하여 10품사를 설정한 것이 있었으며, 문법 용어에 있어서도 두 가지가 병용되는 등 실제에는 통일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버렸다. 몇몇의 저술들이 종전의 품사론 중심에서 벗어나 문장론 중심으로 나가는 의욕을 보여줄 뿐, 대부분의 저서는 이전의 전통 문법의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의 문법 연구가 아직도 품사론 위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용적인 응용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교재 편찬을 위해서는 그 방면에 대한 충실한 문법의 이론적 연구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통일 문법의 체계와 용어에 의한 문법 교과서의 저술을 1979년에 또 한 차례 더 있었다. 1960년대 후반에 있었던 중등 문법과 고등 문법의 구분이 없어지고, 고등 문법만이 검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였는데, 그때는 5종으로 제한되었다. 1968년의 고등 문법은 13종이었었는데, 5종으로 된 것은, 모든 검인정 교과서가 일률적으로 5종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79년 문법의 특징은 이전의 인문계 고등학교 문과계에 부과했던 문법 교과를 인문계 고등학교 전 과정에 확대하여 부과한 점과 교사용 지도서가 필수적으로 딸려 있는 사실이라 하겠다. 이전의 교과서에는 몇 저술을 제외하고는 지도서가 없었는데, 이렇게 같이 저술된 것은 모든 교과서에 교사

10) 그 뒤 문법체계의 통일보다도 문법용어의 채택을 둘러싸고 학계는 '이름췌'식의 순우리말 용어를 주장하는 말본파와 '명사'식의 한자 용어에 찬성하는 문법파로 나뉘어 뜨거운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일선교사까지 참여한 이 논쟁에서 말본파는 한글학회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문교부는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통일방안을 채택해 1963년 7월 25일 '학교문법통일안'을 문교부령으로 공포하고 중학교는 1965년부터, 고등학교는 1966년부터 이 안대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1964년 이후까지 논쟁이 계속 이어지기는 하지만 여기서 문법파동은 일단락되었다.

11) 당시 중등 문법 교과서의 저자로는 이명권 외, 양주동 외, 이희승, 허웅, 이원구 외, 전학진, 남광우 외, 문덕수 외, 이봉주 외, 김형규, 최현배, 김민수 외, 이승녕, 정인승, 이은정 외, 이을환 외 등 16종의 저자가 있었다.

12) 당시 고등 문법 교과서의 저자로는 이명권의, 양주동 외, 강윤호, 최현배, 김민수 외, 이을환, 이은정, 정인승, 강복수 외, 이인보, 허웅, 이승녕, 이희승 등 13종의 저자가 있었다.

용을 두도록 한 방침 때문이다.¹³⁾ 특히 1979년에 저술된 문법 교과서의 문법 체계와 용어는 철저히 1963년의 통일 문법에 근거했다는 점이 1960년대 후반의 검인정 문법과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통일 문법의 체계와 용어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뜻이다. 서술 내용에 있어서도 1960년대와는 달리, 품사 중심보다는 문장 중심의 서술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상당한 진보가 엿보인다. 이는 196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일어났던 문장론 방면의 업적이 크게 뒷받침된 것이라 해석된다.

2) 통합 교재 편찬을 위한 기초 연구

통일 문법의 체계와 용어가 발표된 지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에 등을 댔 문법 교과서가 몇 차례에 걸쳐 검인정 형태로 나왔지만, 실제의 수업 과정이나 응용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지적된 지 오래며, 통합 교재에 대한 요구가 교과나 학습자 사이에서 자주 제기되어 왔다.

한편, 국어학자나 문법 연구가 사이에서도 문법에 대한 인식의 재검토와 그것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적지 않은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에 문법 교육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통합 교재를 요망하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에 당시 문교부는 종전에 인문계 고등학교 전 과정에 부과했던 문법 교과를 국어 II, 곧 일반계 고교 인문·사회 과정으로 돌리고, 제1종 교과서로 개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 방침은 1982년 3월 5일에 결정되었다.¹⁴⁾ 먼저 기초 연구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개발, 보급하기로 하였다. 기초 연구는 성균관 대학교 대동문화 연구원(당시 연구원장 강신항)에서 1982년 3월부터 수행되었는데, 연구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¹⁵⁾

연구진들이 문법 교재 편찬을 위한 기초 연구 결과 보고서로 ‘학교 문법 체계 통일을 위한 연구’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학교 문법의 문제점, 문제의 기본 방향, 문법의 범위, 앞으로의 문법 교육에 대한 방향 설정, 그리고 개발할 교과서의 대체적

13) 그 당시 5종의 검인정 문법 교과서 저자는 김민수, 이길록 외, 김완진 외, 이웅백 외, 허웅 등이었다.

14) 제1종 교과서로 개발할 당시의 통합 편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현재 학교 문법의 용어와 체계가 교과서마다 달라 학생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통일함으로써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공통된 학교 문법을 학습하게 하여 한국인으로서 기본 교양을 갖추게 함.”

15) 연구 책임자: 강신항(성균관대), 연구원: 교영근(서울대), 김영희(한글학회), 남기심(연세대), 이기동(연세대), 이기문(서울대), 이용주(서울대)

인 틀이 포함되었다. 1983년에 성균관 대학교 대동 문화 연구소에서는 문법 교과서 개발을 위한 연구진과 집필진을 구성하고, 기초 연구 결과에 따라 교과서(검토본)를 집필하였다. 이 교과서는 보급에 앞서 1984년 5월, 언론 기관과 전국의 국어학 전공 학자 및 고등학교 교사에게 배부하여 공개 검토를 받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1985년에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1991년도부터는 제5차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국어를 '국어(상·하)', '문학', '작문', '문법', '한문'으로 나누되, '문법'은 인문계 고등학교 문과에만 부과하도록 하였다. '문법'은 종전과 같이 성균관대학교 대동 문화 연구소에서 1종 교과서로 개발을 하되, 다시 연구진과 집필진을 보강하여 1985년도 '문법'의 부족한 점을 바로잡고, '의미'와 '옛말의 문법'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옛말의 문법은 고전 작품과 함께 다룬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록'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지도 지침도 역시 부록으로 다루었다.

1996년도부터는 제6차 교육과정에 따라 제5차 때와 같이 국어 '문법'은 인문계 고등학교 문과에서만 다루도록 하였다. 이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 연구소에서 1종 교과서로 개발하였다. 연구진과 집필진을 교체 보강하여 1991년도 '문법'의 부족한 점을 수정 보완하고, 내용 체계의 순서도 재조정하였다. '총론' 부분을 대폭 축소하고, 각론에서도 '이야기', '바른 언어 생활', '표준어와 맞춤법' 등을 추가하였다. 부록에도 '우리말의 변천'을 더 추가하였다.¹⁶⁾

2.3. 학교문법 통일안의 내용 체계

여기서는 학교문법 통일안의 내용 체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통일된 품사 체계, 곧 아홉 품사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통일된 품사의 계통 체계와 통일된 문법 용어를 체계적으로 알아본다.

16) 제3차 통일문법 국정시대(1996-2002 현재): 1992년에는 초·중·고교 과정에 대한 6차 교육과정이 고시되어 초·중교는 1995년, 고교는 1996년부터 새 과정이 시행되었다. 언어 영역의 내용은 2차의 경우와 달라진 것은 없지만, 지도방법에서 "구체적 언어자료로부터 언어지식을 도출할 수 있는 탐구과정 중심으로 운용한다"라고 '언어탐구학습'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학생 스스로 언어를 자연에 대한 탐구처럼 학습케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의 교과서들에서도 자율원리와 탐구학습법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큰 변화는 문법 교과서의 경우로 실용적인 국어순화, 국어 정서법 관련 단원들이 새로이 추가되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이 특징이다.

2.3.1 통일된 품사

통일안으로 결정된 문법 체계상의 품사 분류는 ① 명사, ② 대명사, ③ 수사, ④ 동사, ⑤ 형용사, ⑥ 관형사, ⑦ 부사, ⑧ 감탄사, ⑨ 조사 등 아홉 가지다. 이들 품사 하나하나에 대하여 정의와 규정을 내린 바는 없으나, 이상과 같은 9품사를 채택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1) 명사

흔히 “주로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정의한다. 그 기능을 보면 단독으로 주어가 되며, 문장 안에서는 조사(토)가 붙어서 다른 여러 가지 성분이 되기도 한다.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일이 그 한 특징이다.

예: 바다 · 마음 · 사랑 · 무지개 · 가을 · 코스모스 · 꿈 · 김소월 · 신라 · 서울 · 백두산 · 훈민정음 · (오신) 분 · (할) 바 · (할) 줄

특히 (한) 되 · (두) 말 · (석) 섬 · (네) 근 · (닷) 냥 · (삼) 분 · (십) 원 · (백) 명 · (천) 리 · (만) 년 등의 분량을 나타내는 말들은 대명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흔히 명사의 일종으로 처리되고 있다.¹⁷⁾

2) 대명사

흔히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대신으로 그것을 직접 가리키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한다. 그 기능을 보면, 위에서 말한 명사의 경우와 같다.

예: 나 · 너 · 당신 · 누구 · 이것 · 거기 · 저리 · 어디

3) 수사

17) 국어문법론 연구에서는 이처럼 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를 분류사(分類詞 classifier)라고 칭하기도 한다. 의존명사 중에서 특별히 수량 단위 의존명사라고 불러 여느 의존명사와 구별하는 특별한 종류가 바로 분류사이다. 반드시 그 앞에 관형사가 와야 문장에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의존명사와 한 부류로 묶이지만, 그 관형사가 이 경우에는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및 수관형사)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의존명사들 역시 결국엔 모두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라는 특성을 가지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일반 의존명사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부류다.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정의한다.¹⁸⁾ 그 기능을 보면, 대략 위에서 말한 명사의 경우와 같다.

예; 하나·둘·셋·육·칠·팔·구·첫째·둘째·셋째·제일·제이·제삼

특히 한 (사발)·두 (되)·석 (삼)·넉 (자)·닷 (말)·삼 (분)·십 (원)·백 (명)·천 (리)·만 (년) 등은 사물의 수효를 나타내는 말들이므로 수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그 기능을 중요시하여 흔히 관형사의 일종으로 처리되고 있다.¹⁹⁾

4) 동사

흔히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정의한다. 그 기능을 보면, 그것만으로 단독으로 술어가 되며, 문장 안에서 어미의 활용으로 다른 여러 성분이 되기도 하나, 부사어의 한정을 받는다. 특히 목적어와의 호응 관계에 따라 자동·타동 또는 사동·피동으로 나눌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예 : 흐르다·오다·그치다·불다·내리다·(끓어)지다·(해) 내다·(가지) 앓다·더불어·가로되

5) 형용사

“사물의 성질이나 형태나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정의한다. 그 기능을 보면, 위에서 말한 동사의 경우와 거의 같다고 하겠으나, 다만 목적어의 호응 관계가 없으므로, 자동·타동 또는 사동·피동의 구분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예 : 붉다·크다·없다·(하고) 싶다·(깊지) 않다

다만 “없다·있다·계시다” 등을 따로 하나의 독립된 품사(존재사)로 세우지 않았

18)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를 양수사(量數詞) 또는 기본수사라 하고,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를 서수사(序數詞)라 한다.

19) 학교문법에서는 수사를 관형사에 포함시키고 있다. 곧 수사는 명사 앞에서 그 명사를 꾸미는 구실도 하므로 동시에 관형사이기도 하다는 것이다.(예: 다섯 학생이 합격되었다.) 그러나 명사를 꾸미는 일은 모든 명사가 다 가지고 있는 성질이어서 수사 고유의 특성이라고 하기 어렵다. 관형사는 어느 경우나 어미변화를 하지 않는 단어라는 절대적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수사는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모든 수사가 동시에 관형사이기도 하다는 것은 분류체계로서도 합리적이지 않다.

으므로, 이들은 다른 품사 속에 소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을 모두 형용사 속에 넣는 방법과 “없다”는 형용사에, “있다·계시다”는 동사에 각각 넣어서 처리하는 방법과의 두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다·아니다” 등을 따로 한 독립된 품사(지정사)로 세우지 않았으므로 이들은 다른 품사 속에 소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 “아니다”는 형용사에 소속될 것이나, 다만 “이다”는 품사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학교문법에서는 “이다”를 품사(조사)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문: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연필이요, 그것은 가방이다.

위의 예문 중 밑줄 그은 말들은 다 각각 체언이 활용하는 하나의 단어로, 동시에 다 각각 하나의 명사라는 품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⁰⁾

6) 관형사

흔히 “사물이 어떠한 것이라고 그 뜻을 수식하는 말”이라고 정의한다. 그 기능을 보면, 그것만으로 단독으로 관형어가 되며,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의 앞에 얹혀서 뒷말을 수식하는 기능이 특징이다.

예 : 새 (옷) · 이 (꽃) · 저 (꽃) · 여러 (사람) · 모든 (문제) · 어느 (책)

특히, 한 (사발) · 두 (되) · 석 (삼) · 녀 (자) · 닳 (말) · 삼 (분) · 십 (원) · 백 (명) · 천 (리) · 만 (년) 등은 수효를 나타내는 말들로서, 뜻으로 보면 수사와 다름이 없으나, 그 기능으로 보아 관형사의 한 종류로 처리되고 있다.²¹⁾

또, 흐르는 물소리가 귀에 익었다. 고운 얼굴이 더욱 곱구나. 이 집은 작년에 지은

20) 현재의 학교문법에서는 “이다”를 서술격조사로 처리하고 있다. 늘 명사에 결합되어 쓰이는 성질이 조사의 성질과 같아서 조사이되, ‘사람이다, 사람이면, 사람이니, 사람인’처럼 활용하면서 명사로 하여금 서술어 노릇을 하게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명사와 다른 단어와의 관계가 아니라 명사와 어미를 결합시켜 주는 구실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조사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 “이다”의 ‘이’가 적어도 조사는 아닐 것이다.

21) 관형사에 수사를 포함시키는 수가 있다. 수사는 명사 앞에서 그 명사를 꾸미는 구실도 하므로 동시에 관형사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관형사는 어느 경우나 어미변화를 하지 않는 단어라는 절대적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수사는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관형사에 모든 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분류체계로도 맞지 않는다.

집이다. 어느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인가?

위의 예(밑줄을 그은 말들)는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관형사로 보지는 않는다. 곧, “호르는”은 “호르다”의, “지은”은 “짓다”의 어미변화의 한 활용형으로 보아 동사의 일종으로 규정하며, “고운”은 “곱다”의, “좋은”은 “좋다”의 어미변화의 한 활용형으로 보고 형용사의 일종으로 규정한다.

7) 부사

흔히 “동사나 형용사의 뜻을 한정하는 말”이라고 정의한다. 그 기능을 보면, 그것만으로서 단독으로 부사어가 되며, 동사나 형용사 또는 부사의 앞에 얹혀서 뒷말을 한정하는 기능이 특징이다.

예 : 늘 (운다)·오물오물 (먹는다)·무척 (빠르다)·몹시 (춥다)·좀 번쩍 (들어 주세요)·훨씬 일찍 (깎어요)

특히, 여성은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배나 혹은 비행기를 타야 갈 수 있다. 그림을 그리고서, 또 글씨를 써라.

위의 예(밑줄 그은 말들)는 그것대로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따로 한 독립된 품사(접속사)로 세우지 않았으므로, 이들은 다름 품사 속에 소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기능과 같지는 않으나, 결정된 9품사 가운데서는 부사와 가장 가까우므로 이에 소속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은 부사의 한 종류인 접속부사라고 부르게 된다.

또, 아이가 잠자듯 눈을 감고 있다. 달이 돌아 오른다. 꽃이 곱게 피었다. 곧, “잠자듯”은 “잠자다”의 “돌아”는 “돌다”의 어미변화의 한 활용형으로 보고 동사의 일종으로 규정하며, “곱게”는 “곱다”의 어미변화의 한 활용형으로 보고 형용사의 일종으로 규정한다.

8) 감탄사

흔히 “무엇에 느껴서 소리 내는 말”이라고 정의한다. 그 기능을 보면, 그것만으로 단독으로 독립어가 되며, 특히 문장의 보통 성분과 유리되거나, 혹은 독립으로 쓰이는 일이 특징이다.

예 : 아아 · 어머니 · 에라 · 아이구 · 흥 · 여보 · 예 · 오나

9) 조사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 아래에 붙어서 그 다음의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항상 독립해서 쓰이는 일이 없는 의존 형태(bound form)로서 실질의 뜻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예 : 그의 모습이 꽃처럼 예쁘다. 고래는 바다에서 산다. 나도 일하러 데에 가겠다.

특히, 장미는 아름다운 꽃이다. 소년인 그는 제법 성숙하다. 그것은 짐승일지라도 모른다.

위의 예(밑줄 그은 말들)에 들어 있는 “-이-”를 조사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학교 문법 통일안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사(또는 대명사나 수사에도 붙는다)에 붙는 “이+다”나 “이+ㄴ”이나 “이+ㄹ지라도”는 모두 그 앞의 말에 딸린 것으로서 한 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품사 분류로 말하면, 위의 예 “꽃이다”와 “소년인”과 “짐승일지라도”는 다 각각 하나의 명사라고 규정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다”는 어미로 본다는 주장일 것이다.²²⁾

또, 웃는다 · 웃는 (사람) · 웃어야 하느냐 · 붉다 · 붉은 (꽃) · 붉게 피니 (꽃) 등에서 밑줄 그은 말들은 동사나 형용사의 한 부분으로 붙어서 쓰이는 것으로서 어미라고 부른다. 이 어미는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에 붙어서 쓰이는 조사와는 구별되며, 조사는 하나의 독립 품사인 데 대하여 어미는 품사의 한 종류가 아닌 것이다. 어미를 떼어 버리면 그 남은 어간만은 자립해서 쓰일 수 없는 성질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사를 떼어 버리면 남은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는 제 홀로 자립할 수 있는 점이 그 큰 차이이다.

이상과 같은 설명으로 미루어, 현행 8종의 중 · 고등학교 국어 문법 교과서와의 차이점을 대조하여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22) 현재의 학교문법에서는 “이다”를 서술격조사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어문법 이론가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품사 분류표〉

A	B	C	D	E	F	G	H	통일 안
이름씨	임자씨	이름씨	이름씨	명사	명사	명사	명사	명사
대이름씨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
셈씨								수사
토씨 (잡음씨)	(토)	것씨 이음씨 (맺음씨)	토씨	조사	(어미)	(토)	(토)	조사
움직씨	풀이씨	움직씨	움직씨	동사	동사	동사	동사	동사
그림씨		그림씨	그림씨	형용사 존재사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잡음씨 (끝)	(토)	(것씨) (이음씨) 맺음씨	토씨 (끝)	(어미)	(어미)	(토)	(토) (어미)	(어미)
매김씨	매김씨	매김씨	매김씨	관형사	관형사	관형사	관형사	관형사
어찌씨	어찌씨	어찌씨	어찌씨	부사 접속사	부사	부사	부사 접속사	부사
느낌씨	느낌씨	느낌씨	느낌씨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10개	5개	9개	8개	10개	8개	7개	7개	9개

2.3.2. 통일된 품사의 계통 문제

이상과 같은 9품사의 계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내려진 바가 없으나, 위에서 설명한 9품사의 내용을 검토하여 가능한 몇 가지 계통표를 만들 수 있다.

- 1) 명사·대명사·수사의 3품사는 그 기능의 공통성으로 보아 하나로 묶일 수 있으며, 이들을 일괄하여 체언이라 이른다.
- 2) 동사·형용사의 2품사는 그 기능의 공통성으로 보아 하나로 묶일 수 있으며, 이들을 일괄하여 용언이라 이른다.

- 3) 관형사·부사의 2품사는 없혀서 수식하는 기능을 보아 하나로 묶일 수 있으며, 이들을 일괄하여 수식언이라 이른다. 또 여기에 감탄사를 넣어서 묶을 수도 있다.
- 4) 조사는 나머지 다른 품사와 구별되는 이질적인 품사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9품사의 계통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표1·표2·표3·표4).
 그러나, 학교문법에서는 표1·표2 정도의 2단계로 구분하는 정도가 좋을 것이다.

제1표

품사	(1)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2)용언	동사
		형용사
	(3)수식언	관형사
		부사
	(4)독립언	감탄사
	(5)관계언	조사

제2표

품사	(1)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2)용언	동사
		형용사
	(3)수식언	관형사
		부사
		감탄사
	(4)관계언	조사

제3표

품사	실질어	관계 성분	(1)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2)용언	동사
				형용사
				관형사
		(3)수식언	부사	
			독립 성분	(4)독립언
	형식어			(5)관계언

제4표

품사	실질어	(1)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2) 용언	동사
			형용사
		(3) 수식언	관형사
			부사
			감탄사
	형식어	(4) 관계언	조사

2.3.3. 통일된 문법 용어

1949년에 문교부에서 제정한 문법용어 표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1) 용어는 당분간 한 개념에 대하여 순수한 우리말로 된 것과 한자음으로 된 것의 두 가지를 정한다.
- 2) 문교부 검인정 도서는 그 중의 한 가지를 일관성 있게 쓸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대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3) 제정 용어 이외의 체계상 더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쓸을 허용한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체 밑에 292개의 용어가 있어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셈이다. 그런데, 그 중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 개념에 대하여 '순수한 우리말로 된 것'과 '한자음으로 된 것'과의 두 계열이 동시에 시행되어 온 것이다. 더욱이 그 중의 한 계열을 일관성 있게 써야 한다는 제약이 있으며, 비록 다른 한 계열은 대조하여 표시한다 하더라도 한 개념에 대하여 두 가지 용어를 외어야 하는 경우 이중 부담이 아닐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무의미한 이중 부담을 덜고 단일 계열에 의한 문법 용어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 문법 용어표가 마련된 것이다. 이 새로운 용어 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유의점이 고려되도록 힘썼다.

2.3.3.1. 외국어 학습과의 관련성

문법 용어는 외국어 문법에도 보편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어느 한 계열만으로 하지 말고, 보급 정도와 이해도를 고려하여 섞어 쓰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영어나 독일어·프랑스어·중국어 등의 외국어 시간에도 쓰이는 같은 한 개념에 대한 문법 용어는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곧, 국어 시간에는 '줄기', '씨', '지난적 나아가기 끝남' 등이라 부르고, 외국어 시간에는 '어간', '품사', '과거 진행 완료' 등으로 부르기로 한다면 통일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배우는 학생의 처지에서 보면 같은 개념에 대하여 수업 시간에 따라 전혀 다른 용어를 구별해서 써야 되는 것이다.

2.3.3.2. 이중 부담의 방지

한 개념에 대하여 두 가지나 또는 두 계열의 용어를 제정한다면, 학교에 따라 혹은 학급에 따라 전혀 다른 용어를 쓰게 될 것이다. 또한, 국어 시간과 외국어 시간에 쓰이는 용어가 같은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어긋나는 결과는 배우는 학생으로서는 무의미한 이중 부담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모순의 방지는 학습자가 짊어질 이중 부담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요긴한 길이기 때문이다.

2.3.3.3. 다른 용어와의 관련성

문법 이외의 다른 용어, 나아가서는 사회 일반 서적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용어란 원칙적으로, 쓰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이해가 바르고 그들 사회에서 보편성이 넓어야 한다.

언어생활에 있어서 간편하기를 추구함은 노력 경제에 입각한 인간 본능의 하나인 것이다. 또 언어란 전통적 습관으로 굳어진 역사적 유산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사실들을 부정하고 일부러 만들어서 쓰기를 강요할 때, 강요당하는 언중들은 부자연함을 느끼며, 여기서 말미암은 불편을 극복하자면 호된 고통이 따른다. 그러므로 다른 용어와의 균형성, 또는 사회 일반 서적과의 관련성을 고려함은 언제나 용어 제정에 있어서 매우 요긴한 일이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향에 입각해서, 현실과 멀리 떨어진 장래와 이세(二世)를 위한다든지, 의식적인 태도로 국어의 순수성을 지킨다든지 하는 등의 이상과 감정에 치우치는 길을 절충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 마련된 문법용어 표는 위에서 이미 예시한 유의점을 충분히 반영시키는 동시에, 자주성을 강조하는 여론을 절충하여 자연스럽게 된 순 우리말 용어 일부를 취하게 되었다.

2.3.4. 국어의 품사와 문법 용어 일람

1) 국어의 품사

품사는 학교 문법 통일 전문 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9품사로 정한다. (1) 명사 (2) 대명사 (3) 수사 (4) 동사 (5) 형용사 (6) 부사 (7) 관형사 (8) 감탄사 (9) 조사

2) 국어 문법 용어 통일의 원칙

문법 용어는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 별표와 같이 정한다.

<원칙>

- (1) 용어는 학교문법 통일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원칙을 살려 절충식으로 통일한다.
- (2) 문법 교육상 무리 없는 말을 채택한다.
- (3) 외국어 문법 교육과의 관련성을 고려한다.
- (4) 일반 사회의 통용성을 고려한다.
- (5) 일반 용어와 세부 용어는 정하지 아니한다.
- (6) 부자연스러운 용어는 수정한다.

3) 국어 문법 용어표

(1) 말소리

- | | |
|----------|----------|
| 1. 울림소리 | 8. 첫소리 |
| 2. 안울림소리 | 9. 속소리 |
| 3. 된소리 | 10. 끝소리 |
| 4. 거센소리 | 11. 모음조화 |
| 5. 혀옆소리 | 12. 구개음화 |
| 6. 굴림소리 | 13. 조음소 |
| 7. 소릿값 | 14. 음절 |

(2) 체언

- | | |
|------------|-----------|
| 15. 품사 | 24. 명수사 |
| 16. 품사론 | 25. 복합명사 |
| 17. 체언 | 26. 구상명사 |
| 18. 명사 | 27. 추상명사 |
| 19. 대명사 | 28. 집합명사 |
| 20. 수사 | 29. 물질명사 |
| 21. 고유명사 | 30. 중다명사 |
| 22. 보통명사 | 31. 인칭대명사 |
| 23. 불완전 명사 | 32. 지시대명사 |

- 33. 의문대명사
- 34. 부정대명사
- 35. 관계대명사
- 36. 재귀대명사
- 37. 강세대명사
- 38. 감탄대명사

- 39. 합성관계대명사
- 40. 선행사
- 41. 양수사
- 42. 서수사
- 43. 소유대명사

(3) 체언의 변화

- 44. 격변화(Declension)
- 45. 주격
- 46. 관형격
- 47. 여격(Dative Case)
- 48. 탈격(Ablative Case)
- 49. 목적격(Accusative Case)
- 50. 공동격(Conjunctive Case)
- 51. 조격(Instrumental Case)
- 52. 호격(Vocative Case)
- 53. 서술격
- 54. 강변화
- 55. 약변화

- 56. 혼합변화
- 57. 제일인칭
- 58. 제이인칭
- 59. 제삼인칭
- 60. 성(Gender)
- 61. 남성
- 62. 여성
- 63. 중성
- 64. 통성
- 65. 수
- 66. 단수
- 67. 복수

(4) 용언의 종류

- 68. 용언
- 69. 동사
- 70. 타동사
- 71. 자동사
- 72. 사동사
- 73. 능동사
- 74. 피동사
- 75. 여격동사
- 76. 불완전타동사
- 77. 완전타동사

- 78. 불완전자동사
- 79. 완전자동사
- 80. 재귀동사
- 81. 비인칭동사
- 82. 분리동사
- 83. 비분리동사
- 84. 분리비분리동사
- 85. 원사
- 86. 한정사
- 87. 전철

- | | |
|-----------|------------|
| 88. 본동사 | 98. 의문형용사 |
| 89. 조동사 | 99. 특칭형용사 |
| 90. 불구동사 | 100. 물질형용사 |
| 91. 보조어간 | 101. 분량형용사 |
| 92. 설화조동사 | 102. 수형용사 |
| 93. 형용사 | 103. 배승형용사 |
| 94. 성질형용사 | 104. 개별형용사 |
| 95. 형상형용사 | 105. 소유형용사 |
| 96. 시간형용사 | 106. 관계형용사 |
| 97. 지시형용사 | |

(5) 용언의 변화

- | | |
|----------------------------|---------------------------|
| 107. 어미변화 | 126. 서술법(형) |
| 108. 용언활용 | 127. 의문법(형) |
| 109. 어간 | 128. 명령법(형) |
| 110. 어미 | 129. 접속법(형) |
| 111. 규칙용언 | 130. 감탄법(형) |
| 112. 불규칙용언 | 131. 청유법(형) |
| 113. 원형 | 132. 조건법 |
| 114. 형 | 133. 간접화법 |
| 115. 부정형(Indefinite form) | 134. 직접화법 |
| 116. 종지법(형) ²³⁾ | 135. 정법(Finite Mood) |
| 117. 관형법(형) | 136. 부정법(Infinitive Mood) |
| 118. 명사형 | 137. 분사(Participle) |
| 119. 동명사 | 138. 현재분사 |
| 120. 병립법(형) | 139. 과거분사 |
| 121. 방임법(형) | 140. 피동 |
| 122. 구속법(형) | 141. 사역 |
| 123. 가정법(형) | 142. 능동 |
| 124. 인용법(형) | 143. 기능 |
| 125. 직설법 | 144. 긍정 |

23) 법, 형은 체계에 따라 마음대로 쓸 수 있음.

- | | |
|-------------|-------------|
| 145. 부정 | 157. 단순미래진행 |
| 146. 희망 | 158. 현재완료 |
| 147. 시제 | 159. 과거완료 |
| 148. 현재 | 160. 미래완료 |
| 149. 과거 | 161. 현재진행완료 |
| 150. 미래 | 162. 과거진행완료 |
| 151. 완료 | 163. 미래진행완료 |
| 152. 회상 | 164. 비교 |
| 153. 추량 | 165. 원급 |
| 154. 진행형 | 166. 비교급 |
| 155. 단순현재진행 | 167. 최상급 |
| 156. 단순과거진행 | |

(6) 관형사

- | | |
|------------|------------------|
| 168. 관형사 | 172. 관사(Article) |
| 169. 지시관형사 | 173. 정관사 |
| 170. 수관형사 | 174. 부정관사 |
| 171. 성상관형사 | |

(7) 부사

- | | |
|-----------|-----------|
| 175. 부사 | 178. 의문부사 |
| 176. 지시부사 | 179. 관계부사 |
| 177. 시간부사 | |

(8) 접속사 및 감탄사

- | | |
|--------------------------|--------------|
| 180. 접속사 | 182. 종속적 접속사 |
| 181. 대결적 접속사 | 183. 감탄사 |
| (Coordinate Conjunction) | |

(9) 조사

- | | |
|-----------------------|-------------------------|
| 184. 조사 | 186. 후치사(Post-position) |
| 185. 전치사(Preposition) | |

(10) 접사 및 기타

- | | |
|----------|----------|
| 187. 접사 | 191. 복합어 |
| 188. 접두사 | 192. 어원 |
| 189. 접미사 | 193. 어근 |
| 190. 접요소 | 194. 전성 |

(11) 문장

- | | |
|----------------------|----------------------------|
| 196. 문장론 | 216. 제시어 |
| 197. 성분 | 217. 호어 |
| 198. 주어 | 218. 구(Phrase) |
| 199. 서술어 | 219. 절(Clause) |
| 200. 주성분 | 220. 명사절 |
| 201. 부속성분 | 221. 관형절 |
| 202. 수식어 | 222. 부사절 |
| 203. 관형어 | 223. 주어절 |
| 204. 부사어 | 224. 서술절 |
| 205. 목적어(Accusative) | 225. 대등절 |
| 206. 직접목적어 | 226. 종속절 |
| 207. 간접목적어 | 227. 주절 |
| 208. 동족목적어 | 228. 단문 |
| 209. 보어 | 229. 복문(Complex Sentence) |
| 210. 주격보어 | 230. 중문(Compound Sentence) |
| 211. 목적격보어 | 231. 혼성문 |
| 212. 독립어 | 232. 종속문 |
| 213. 동격 | 233. 주문 |
| 214. 주어부 | 234. 대등문 |
| 215. 서술부 | 235. 정치법 |

236. 도치법

238. 생략법

237. 후치법

(12) 문장부호

239. 문장부호

246. 따옴표 (“ ”)

240. 마침표 (.)

247. 작은따옴표 (‘ ’)

241. 쌍점 (:)

248. 붙임표 (○-○)

242. 쌍반점 (;)

249. 줄표 (—)

243. 쉼표 (,)

250. 긴소리표 (⓪ :)

244. 물음표 (?)

251. 밑줄 (○○○)

245. 느낌표 (!)

252. 묶음표 (())

(※ 용어 일람표에서는 띄어 쓰지 않았음.)

이상과 같이 국어 교육의 한 당면한 숙제였던 중·고등학교 학교 문법의 통일안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기왕에 공급된 문법 교과서의 체계와 용어는 각양각색으로 달랐으나, 이제 이 통일안을 기준으로 하여 같아지게 된 것이다. 이 통일안은 각 학자들의 학문문법으로서의 개인적 주장이 함부로 피교육자의 머리를 스치거나, 지식 욕에 불타는 학도의 뇌리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사례가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후로부터 독선적인 개인의 문법 체계가 그대로 연역적으로 주입되게 하는 일은 없어졌다.

그리하여 완성된 학교문법 통일안에 가능한 해설을 덧붙인 이 재료가 통일 문법을 하루라도 빨리 연구 보급하게 하는 데에 자료로 활용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 유효하게 사용되었던 것이다.

3. 국어 학교문법 통일을 위한 세부 내용 체계

중·고등학교 국어교육에 있어서 특히 문법교육은 과거에 어떠한 개인의 학문적 체계를 주입하는 폐단이 있었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문법은 어떤 특정한 문법체계의 주입보다는 일반성 있는 기초지식을 확고

히 하여, 교과적인 언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길러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문법의 통일을 요망하는 목소리는 날로 높았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문교부 국어교육과정심의회는 많은 정력을 소모하여 1963년 7월 25일에 역사적인 통일안을 확정·발표하기에 이르렀고, 드디어 196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그러나 정력을 들여 모처럼 이룩한 이 통일안은 (1) 명사·대명사·수사·동사·형용사·관형사·부사·감탄사·조사의 9품사체계와 (2) 252개의 문법용어와의 두 가지 사정에 국한되어 있다. 이것은 학교문법 통일의 의도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그 목적을 다했다고 할 수 없는 점이 많다. 곧 의견을 종합하여 반드시 통일했어야 할 다음과 같은 많은 사정들이 제멋대로 다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당시 중학교 국어문법교과서 16종 중 13종의 저서 및 고등학교 국어문법교과서 집필자 유지일등은 한 자리에 모여 기탄없는 소견을 교환했던 것이다. 많은 인원들이 오랜 시간을 들여 다음과 같은 학교문법 통일안을 위한 제안을 마련하였다. 이 안의 목표하는 바는 문교부 학교문법통일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오직 그 통일의 목적을 더욱 철저하게 기하려는 데 있을 따름이었다.

이 안의 기본 강령은 다음과 같다.

- (1) 문교부의 학교문법통일안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미결된 세안만을 논하여, 되도록 구비된 통일안으로 발전되기를 기한다.
- (2)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채택한다.
- (3) 공동토론의 방법으로 완전 합의를 보거나, 또는 다수의 경향을 다수결로 종합한다.

각자의 소론에 따라 엇갈리는 수많은 견해들을 절충하여 통일된 것으로 귀일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특히 세부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이 안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다한 난관을 겪었음을 미루어볼 수 있다. 오직 문법교육의 효과를 꾀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했고, 이를 위하여 소아(小我)를 버리며 대아(大我)를 위하여 입을 모았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정신과 태도를 갖지 않았던들 이와 같은 안은 도저히 마련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어렵게 이루어진 성과를 널리 발표하게 되었다. 그리고 각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러한 취지를 살피서 당면한 우리의 과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되었다. 실제로 당시의 중학교 국어문법교과서 저자들과 고등학교 국어문법교과서 집필자 유지 일동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기도 하였다.²⁴⁾

- (1) 문교부로서는 이 안을 문법교과서 저자 및 각급 학교 교사들에게 주지시켜 학교문법 통일을 위한 당초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부합되도록 최선의 힘을 기울여 줄 것을 바란다.
- (2) 본안 작성에 참여한 중·고등학교 문법교과서 저자 및 집필자는 이 안을 준수할 것이나, 참석하지 않은 본도 통일을 위한 목적에 합치되도록 최대한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 (3) 앞으로는 이 안에 따른 문법교과서가 많이 저술될 것이므로, 입시출제에 있어서도 이 안에 참여한 분이 관여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 합의된 사항을 지켜서 출제하게 될 것이다. 관계인사 제위의 각별한 협조가 있기를 경망(敬望)하는 바이다.

3.1. 학교문법 통일을 위한 세부안

다음 각항의 (1)은 문제점, (2)는 결정사항, (3)은 교육적 필요성으로 나누어 상술한 것이다²⁵⁾.

3.1.1. 문장성분

- (1) 문장성분의 분류는 구문의 분석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종래의 학교문법에서는 저자에 따라 성분의 종류나 수가 다를 뿐 아니라, 그 규정도 달라 혼란을 자아냈다. 이를테면 목적어나 보어를 부사어(한정어)의 한 갈래로 보기도 하고, 보어의 적용한계도 같지 않았다. 또한 접속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어를 독립어 또는 부사어로 다루는 등 이견이 구구하였다.
- (2) 이에 성분을 다음과 같이 나누기로 한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접속어
- (3) 문장성분에서 문제가 되는 목적어와 보어는 문장의 근간성분으로 따로 두

24) 이는 1967년 1월 25일에 당시의 중학교 국어문법교과서 저자와 고등학교 국어문법교과서 집필자 유지일동이 발표한 내용이다.

25) 교과서 저자들의 협의체에서 편찬지침인 '학교문법통일을 위한 세안(細案)'을 1967.1.25에 내놓았는데 이는 가장 정점이 된 성분, 보어, 조사, 어미, 시제, 불규칙 등의 12개 항목에 대해 각 항목마다 (1) 문제점, (2) 결정사항, (3) 교육적 필요성의 관점을 밝힌 것으로 통일안을 세부적으로 보강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구속력은 없었다. 전체적으로는 품사론 중심의 기술이 지배하였다. 이 시기의 문법서들은 제2차 교육과정기 중반에 나와 3차 교육과정(중학교 1973.8.31, 고등학교 1974.12.31 공포-1981년까지) 전반기까지 존속되었다.

며, 성분이나 구절 또는 문장의 접속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어는 구문상 부사어나 독립어와도 다르기 때문에 따로 두기로 한다.

3.1.2. 보어의 범위

- (1) 보어를 “이다·아니다”에 선행하는 체언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혹은 소위 용언의 부사형 “~게, ~지, ~고”의 형태로 규정하기도 하여, 보어는 국어의 문장성분 중 가장 이설이 많은 사항이다.
- (2) 보어의 범위는 체언으로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
- (3) 보어는 그것만으로 판단이 성립될 수 없는 불완전 용언을 보충하는 말로 주어 또는 목적어와 대등한 자격을 가진 말로 잡았다. 이를테면, “물이 얼음이 된다.”, “마루는 방과 다르다.”, “나는 그를 아내로 삼았다.”, “우리는 이 나라를 조국 이라고 부릅니다.”에서 밑줄친 어절과 같은 것을 보어로 본다. 따라서 종래 보어로 보아오던 “밥을 먹지 않는다.”의 “먹지”는 서술구 “먹지 않는다.”의 한 부분성분으로서 서술부사어로 다루기로 한다.

3.1.3. 조사의 분류

- (1) 첨가어인 국어에서는 조사의 처리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종래의 이 조사의 분류는 이분, 삼분 내지 사분법까지 취하여 그 분류에 있어서 심한 혼란을 가져왔다. 그 뿐더러 격조사도 각양각색의 자의적인 하위분류를 하여 매우 번잡한 실정이다.
- (2) 조사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격조사와 특수조사로 크게 양분하고, 조사엔 다시 아래와 같은 하위분류를 두기로 한다.
 - A. 격조사: 1. 주격, 목적격, 보격, 관형격, 부사격, 독립격
 2. 서술격, 접속격
 - B. 특수조사
- (3) 이처럼 조사를 격조사와 특수조사로 양분함을 그 기능으로 보아 일정한 격을 갖게 하는 것과 여러 격으로 두루 쓰이는 것으로 이분되기 때문이다. 격조사는 문장 성분을 일차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한 것이나, 서술격은 어미변화로 격의 전환을 가져오는 점과, 접속어는 등위의 자격을 주는 점에 비추어 이를 A와 B로 나누었다.

3.1.4. 어미의 분류

- (1) 종래의 어미분류는 대체로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의 삼분법을 취하였다. 전성어미에 있어서는 이설이 없었으나, 종결어미에서는 결어상의 문형으로 명칭을 붙이고, 연결어미에서는 의미상으로 “연발형, 나열형, 중지형, 익심형” 등등으로 수많은 명칭을 자의적으로 사용하였다.
- (2) 용언의 활용형을 다음과 같이 명칭을 붙여 분류한다.
- A. 서술형 1. 종결서술형 (1.평서법, 2.의문법, 3.명령법, 4.감탄법, 5.옹박법, 6.칭유법)
2. 연결서술형 (1.대동법, 2.종속법)
- B. 관형형
- C. 부사형
- D. 명사형
- (3) 종결서술형에 6법을 둔 것은 문장의 종류와 직결시킨 분류이며, 연결서술형은 중문을 이루느냐 복문을 이루느냐의 관점에서 분류한 것이다. 전성법을 피한 것은 다단계의 명칭을 사용하지 말자는 의도에서이며, 도표에 나타난 용어 이외는 더 술어화하지 않기로 하였다.

3.1.5. 용언의 시제

- (1) 서술형시제를 현재·과거·미래로, 또는 이에 대과거를 더하기도 하고, 관형형에서도 현재·과거·미래에 회상시제 도는 과거미완을 두고 있는 실태이며, 동사에 있어 “먹는다”를 현재 또는 현재진행으로 보기도 한다.
- (2) 다음과 같이 시제를 정한다.

시제	서술형		관형형	
	동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
현재	먹는다	좋다	먹는	좋은
미래	먹겠다	좋겠다	먹을	좋을
과거	먹었다	좋았다	먹은	좋던
대과거	먹었었다	좋았었다	×	×
과거미완	×	×	먹던	×

- (3) 시제의 복합태는 이를 따로 세우지 아니한다. 이는 혼란을 덜기 위해서이다. 관형형에서 “먹었던, 좋았던”이 쓰이기는 하나 “먹던, 좋던”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표준화하지 않는다. 대과거와 과거는 국어에서는 엄격히 구분되어 쓰이지 않기는 하나 외국어의 영향을 받아 널리 보편화한 현상에 비추어 그대로 두기로 한다.

3.1.6. 문장의 종류

- (1) 문장의 종류를 이해하는 일은, 문의(文意) 파악이나 구문이해를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서법상의 문형은 저자에 따라 그 분류가 가지가지인 실태다. 이를테면, 구조상의 종류에서 단문·중문·복문으로 삼분(三分)하기도 하고, 이에 혼성문을 더하여 사분(四分)하기도 하며, 응낙문·청유문·기원문 등을 더하기도 하는 그것이다.
- (2) 문장의 종류는 구조상과 서법(형태)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눈다.
- A. 구조상: 1. 단문, 2. 중문, 3. 복문, 4. 혼성문
- B. 서법상: 1. 평서문, 2. 의문문, 3. 명령문, 4. 감탄문, 5. 응낙문, 6. 청유문
- (3) 서법상의 문형은 6종으로 분류한 것은 종결서술형어미 분류와 일치시켜 상호연관으로 이해를 쉽게 함에 있다. 또한 국어의 어미 발달을 감안한 최소의 분류다.

3.1.7. 문장의 도해

- (1) 문장의 구조 및 성분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문장도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교재마다 그 도식이 각양각색이어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많은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 (2) 문장도해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가)	<div>관형사</div> <div>주어</div>	<div>부사어</div> <div>보어 / 서술어</div>
(나)	<div></div> <div>주어</div>	<div></div> <div>목적어 / 서술어</div>
(다)	<div></div> <div>주어</div>	<div></div> <div>주용언 조용언</div>
(라)	<div></div> <div>독립어,</div>	<div></div> <div>주어 서술어</div>
(마)	<div></div> <div></div>	<div>접속어</div> <div></div>
(바)	<div></div> <div>인생은 짧고,</div>	<div></div> <div>예술은 길다</div>
(사)	<div></div> <div>내가 떠나가면</div>	<div></div> <div></div>
	<div></div> <div>나는</div>	<div></div> <div>슬프다,</div>

〈설명〉

1. 근간성분은 근간선 아래에, 지엽성분은 근간선 위에 둔다.
2. 주어부와 서술부 사이에는 근선에 수직교차의 세로선을 긋고, 보어와 서술어 사이에는 좌향사선, 목적어와 서술어 사이에는 우향사선을 그어 구분표시한다.
3. 관형어와 부사어는 ─┐ 모양으로 선을 그려 표시하되, 부사어에는 아래로 내리긋는 선을 두 줄로 ─┐┐ 모양의 선을 그려 표시한다.
4. 그림 (다)와 같이 서술어의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Dash (─)로 나타낸다.
5. 독립어는 그림 (라)와 같이 따로 독립시켜 근간선 아래에 두고, 근간선과 나란히 쉼표 (,)를 찍는다.
6. 접속어는 그림 (마)와 같이 점선을 찍어 근간선 위에 둔다.
7. 중문(Compound Sentence)은 그림 (바)와 같이 좌우로 나란히 병렬하기로 한다.
8. 복문(Complex Sentence)은 그림 (사)와 같이 상하로 놓아 주종관계의 층위를 보인다.

(3) 근간성분(주성분)을 어간선 아래에 둔 것은 우리말에선 피수식어가 어순상 아래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렇게 도해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판독하기 쉽기 때문이다. 목적어와 보어는 같이 근간성분이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표시한다. 관형어와 부사어도 다 같이 지엽성분이긴 하나, 그 성질이 다르므로 구분한 것이다. 독립어는 근간성분이므로 근간선 아래에 두고, 접속어는 근간성분이 못되므로 점선으로 그 접속을 보이고 근간선과 나란히 점선 위에 두기로 한 것이다.

3.1.8. 변칙용언

- (1) 변칙용언은 그 명칭과 분류가 매우 구구하다. 예컨대 명칭에 있어 “러 변칙”과 “르 변칙 첫째”, “여 변칙”과 “하 변칙”의 병용이 그것이고, 분류에 있어서도 “우 변칙”, “으 변칙” 등을 인정하기도 하고 않기도 하는 등 혼란이 있다.

(2) 이러한 실태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세우기로 하였다.

변칙 용언	ㄷ변	ㄹ변	ㅂ변	ㅅ변	ㅈ변	ㄴ변	ㄷ라변	ㄹ라변	ㅇ변	ㄹ변	으변	우변
동사	○	○	○	○	×	○	○	○	○	○	○	○
형용사	×	○	○	○	○	○	×	×	○	○	○	×

곧 동사에선 11개의 변칙, 형용사에선 8개의 변칙으로 하고, 그 명칭은 위의 표에 따르기로 한다.

(3) 변칙은 크게 분류하여 ① 어간의 끝 자음이 바뀌는 것. ② 특수한 어미를 취하는 것. ③ 어간과 어미가 함께 바뀌는 것. ④ 어간의 음절만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①은 그 끝 자음을 ②는 그 취하는 어미를 ③은 어간의 끝 음절을 ④는 줄어드는 음절의 모음을 각각 다서 이름 붙이기로 하였다. “으변, 우변”을 세운 근거는 이들을 약어로 볼 수 없다는데 있다. 약어는 원어와 병용됨이 원칙인데 “쓰다, 푸다”는 “쓰어, 푸어”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변칙으로 본 것이다. “거라변칙”은 어간이 개모음 ‘아’로 끝나는 동사(예: 가다, 까다, 나다, 다다, 사다, 자다, 차다, 타다 류)가 어미 “-거라”를 취하기 때문에 인정하였다. 그러나 “듣거나, 앉거라, 살거라, 낫거라” 따위는 변칙으로 보지 않고, “들어라, 앉아라, 살아라, 나아라”의 강의표현(強意表現)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3.1.9. 보조어간의 한계

- (1) 종래 보조어간이라 하여 “겸칭·겸양·시제·피동·사동·강세” 등의 접미사를 광범하게 포괄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밀치다”의 원형을 “밀다”로 잡고 있는 것이다.
- (2) 보조어간은 “겸칭·겸양·시제”의 접미사에 한하고, 종래 보조어간으로 다루어 온 “피동·사동·강세”의 접미사는 이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동의 “먹히다” 사동의 “먹이다”, 강세의 “밀치다”는 그대로 원형으로 잡는다.
- (3) 그 근거는 “시제·겸칭·겸양”의 그것은 광범하게 붙여 쓰일 뿐더러

자유로이 첨락(添落)되는 것이나, “피동·사동·강제”의 접미사는 새로운 말, 곧 파생어를 일으키므로 이들이 붙은 말은 다른 말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놓으시다”의 원형은 “놓다”이나, “놓치다”의 원형은 그대로 “놓치다”로 볼 수밖에 없다.

3.1.10. 각 품사의 하위분류

- (1) 중학교용 교과서에서는 대체로 상론되지 않았으나, 고등학교용에서는 자연히 상술을 요하는 터이므로 어떻게 또 어떠한 명칭 아래 분류할 것이냐가 문제시될 것 같다.

(2) (ㄱ) 명사

- ① 보통명사·고유명사의 분류는 반 전통적인 것이므로 그대로 유지 하여도 좋을 것이다.
- ② 실질-형식, 완전-불완전, 자립-의존의 등치대립의 명칭은 이견이 많아 통일을 보지 못하였음. 이는 당시 문교부 제정 용어가 완전-불완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ㄴ) 대명사

인칭대명사·사물대명사·처소대명사로 분류한다.

(ㄷ) 수사

기본수사·서수사로 양분한다.

(ㄹ) 동사

- ① 자동사·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므로 구문상 필요하다.
- ② 규칙동사·변칙동사·불규동사는 활용면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 ③ 본동사와 조동사는 언어성분을 이루는 국어의 본태에 미루어 인정 하여야 할 것이다.
- ④ 완전동사·불완전동사는 보어를 취하느냐 않느냐의 면에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ㄴ) 형용사

- ① 자립형용사·보조형용사는 언어성분을 이루는 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 완전형용사·불완전형용사는 보어를 취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H) 관형사

지시관형사·성질관형사·수관형사로 하위분류한다.

(八) 부사

① 한정부사와 접속부사로 분류한다.

② 본래부사·전성부사는 형태론적 분류이나, 논자에 따라 쓸 수 있다.

3.1.11. 존대법

(1) 존대법은 대인관계에 따라 달리하는 화법의 하나로, 우리의 언어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존대법을 주체존대·객체존대·상대존대 등으로 나누기도 하나, 요는 “나”, “남”의 입장에서 취해지는 것이므로 세분은 오히려 이해에 곤란을 가져온다.

(2) 이분법으로 다음과 같이 나눈다.

공대법……상대편이나 제삼자를 직접적으로 높여 대접하는 말법.

겸양법……“나”나 “나의 편”을 낮추어 간접적으로 높여 대접하는 말법.

(3) 주체존대법과 객체존대법을 구분하나, “주체존대법”의 “주체”는 언제나 객관적인 주체이므로, 여기에 등장될 수 있는 어휘는 제이인칭이든 제삼인칭이든 다 “나”가 아닌 것이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3.1.12. 단어(어휘)의 구조

(1) 문화의 발달에 따라 어휘는 늘어 간다. 이들 새로운 어휘가 어떠한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가 하는 문제는 조어론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사람에 따라 단일어·복합어·파생어로 나누기도 하고, 이에 합성어를 더하기도 하며 어떤이는 단일어·복합어로 양분하여 파생어를 단일어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또한 술어에 있어서도 복합어·합성어의 정의가 도착(倒錯)되어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2) 이에 형태 결합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분법으로 나눈다.

- ① 단일어(Simple Word)…한 요소로 된 단어.
- ② 복합어(Compound Word)…둘 이상의 요소가 대립적으로 결합된 단어.
- ③ 파생어(Derived Word)…둘 이상의 요소가 종속적으로 결합된 단어.
- ④ 합성어(Complex Word)…셋 이상의 요소가 대립관계와 종속관계로 결합된 단어.

(3) 이는 문장 종류(구조상)와 관련시켜 분류한 것이다. 곧 단일어…단문, 복합어…복문, 파생어…복문, 합성어…혼성문의 결합 방법을 연상하여 나누었다. 그리고 첨어는 복합어에 포함시키며, “집집이”, “헝쌀밥”은 그 구조가 복합어+접사(집집+이), 파생어+실사(헝쌀+밥)이기 때문에 복합어와 달라 이러한 구조의 단어를 합성어로 보았다.

4. 마무리

이 글은 중·고등학교 국어 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통일된 학교문법의 형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국어의 학교 문법 통일의 목적과 필요성을 알아보았다. 국어 학교문법은 중·고등학교에서 지도하는 국어 문법의 체계와 용어를 통일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학교 문법의 통일은 그 성과를 피하기 위하여, 이미 1962년 11월 국어 문법 지도 지침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교문법 교재의 내용 체계를 일원화 하자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국어 학교 문법의 통일 문제는 국어 교육에 있어서 오래 전부터 과제로 되어 왔던 터이므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되어 왔다.

문법 연구는 그 종류에 따라 각각 방법론을 달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학교 문법은 그 성격으로 보아 어떠한 제약을 가해서라도 문법 용어라든가, 품사의 종류를 비롯하여 문법의 체계에 있어서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국어 학교문법의 통일 배경과 그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국어 학교문법 통일안의 내용 체계를 알아보았다. 1963년에 학교문법 통일안이 마련된 이후에도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어 문법의 내용은

몇 차례 수정·보완하는 변화를 겪었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국어 문법 통일안이 형성된 이후의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으며, 국어 문법 통일안 형성 당시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왜냐하면 본고는 국어 문법의 통일안이 어렵게 마련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요즈음 한문과 교육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문 학교문법 통일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자료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다.

국어 학교문법의 통일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같이, 최근에 한문 문법교육에서도 품사 분류라든가, 문법 단위, 문법의 범주 설정, 문법 용어의 혼란상 등의 많은 문제점들을 통일해 보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또한 문장의 종류 및 문장의 형식, 문장의 구조 등도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서마다 설명이 서로 달라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한문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문 학교문법의 통일이 시급히 요망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한문 학교문법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국어 학교문법의 통일 형성 과정에서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을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 잘 해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복수·유창균, 「문법」, 대구, 형설출판사, 1968.
 강윤희, 「정수 문법」, 서울, 지림출판사, 1968.
 고창식·이명권·이병호, 「학교문법 해설서」(문교부 통일안에 따른), 서울, 보문사, 1965.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문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1996.
 권재일, 「한국어 문법사」,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1998.
 김규식, 「대한 문법」, 1908년경 유인물, 1912년경 유인물.
 김근수, 「중학 국문법책」, 서울, 문교당, 1947.
 김두봉, 「조선 말본」, 경성, 신문관, 1916.
 김민수, 「국어 문법론 연구」, 서울, 통문관, 1960.
 김민수, 「문법」, 서울, 어문각, 1979.
 김민수·남광우·유창돈·허웅, 「새 고교 문법」, 서울, 동아출판사, 1960.
 김민수·남광우·유창돈·허웅, 「새 중학 문법」, 서울, 동아출판사, 1960.

- 김민수 · 이기문, 「표준 문법」, 서울, 어문각, 1968.
- 김민수 · 이기문, 「표준 중학 문법」, 서울, 어문각, 1967.
- 김민수 · 하동호 · 고영근, 「역대한국문법대계」(제1부 34책), 서울, 탑출판사, 1985.
- 김민수 · 하동호 · 고영근, 「역대한국문법대계」(제1부 38책), 서울, 탑출판사, 1985.
- 김완진 · 이병근, 「문법」, 서울, 박영사, 1979.
- 김윤경, 「나라 말본」, 서울, 동명사, 1948.
- 김윤경, 「조선 말본」, 1925년 유인물. <배화> 4(1932)수록.
- 김윤경, 「중등 말본」, 서울, 동명사, 1948.
- 김형규, 「새로운 중학 문법」, 서울, 고려서적(주), 1967.
- 김희상, 「조선 어전」, 경성, 보급서관, 1911.
- 김희상, 「초등 국어 어전」(3권), 경성, 유일서관 초판, 1909.
- 남광우 · 유창돈 · 이응백, 「중학 문법」, 서울, 동아출판사, 1966.
- 남궁 역, 「조선어법」, 1918년경 초고, <향토> 5(1947)수록.
- 남기심 ·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2002.
- 문교부, 「고등학교 문법 교사용 지도서」,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5.
- 문교부, 「고등학교 문법 교사용 지도서」,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1.
- 문덕수 · 김윤식, 「중학 문법」, 서울, 청운출판사, 1967.
- 박승빈, 「간이 조선어 문법」, 경성, 조선어학 연구회, 1937.
- 박승빈, 「조선어학 강의 요지」, 경성, 보성전문학교 초판, 1931.
- 박승빈, 「조선어학」, 경성, 조선 어학 연구회, 1935.
- 박영목 · 한철우 · 윤희원, 「국어과 교수 학습론」, 서울, 교학사, 2002
- 박종우, 「한글의 문법과 실제」, 부산, 중성사 출판부, 1946.
- 박창해, 「쉬운 조선 말본」, 서울, 계문사, 1946.
- 서정수, 「국어문법」, 한양대학교출판원, 1996.
- 심의린, 「개편 국어 문법」, 서울, 세기과학사, 1949.
- 심의린, 「중등 학교 조선어 문법」, 경성, 조선어 연구회, 1936.
- 안확, 「조선 문법」, 경성, 회동서관 초판, 1917.
- 양주동 · 유목상, 「새 문법」, 서울, 대동문화사, 1968.
- 양주동 · 유목상, 「새 중등 국어 문법」, 서울, 대동문화사, 1966.
- 유길준, 「대한 문전」 한성, 용문관, 1909.
- 유길준, 「조선 문전」, 1890년대 초고, 1906년경 유인물, 1907년경 유인물.
- 이규방, 「신찬 조선 어법」, 경성, 이문당 초판, 1922.

- 이규영, 「현금 조선 문전」, 경성, 신문관 초판, 1920.
- 이길록·이철수, 「문법」, 서울, 삼화출판사, 1979.
- 이명권·이길록, 「문법」, 서울, 삼화출판사, 1968.
- 이명권·이병호, 「새 국어 문법」, 서울, 교학사, 1966.
- 이봉주·구인환, 「중학교 국어 문법」, 서울, 범문사, 1967.
- 이승녕, 「고등 국어 문법」, 서울, 을유문화사, 1956.
- 이승녕, 「고전 문법」, 서울, 을유문화사, 1954.
- 이승녕, 「국어 문법」, 서울, 을유문화사, 1968.
- 이승녕, 「중등 국어 문법」, 서울, 을유문화사, 1956.
- 이승녕, 「중학 국어 문법」, 서울, 을유문화사, 1967.
- 이영철, 「중등 국어 문법」, 서울, 을유문화사, 1948.
- 이완웅, 「중등 교과 조선어 문전」, 경성, 조선어 연구회, 1929.
- 이원구·이은문, 「표준 중등 문법」, 서울, 수학사, 1966.
- 이은정, 「우리 문법」, 서울, 문천사, 1968.
- 이은정·한인석, 「중학 표준 문법」, 서울, 지림출판사, 1967.
- 이을환, 「최신 문법」, 서울, 양문사, 1968.
- 이을환·이응호·이인섭, 「중학 문법」, 서울, 사조사, 1967.
- 이응백·안병희, 「문법」, 서울, 보진재, 1979.
- 이응백·이기백, 「국어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5.
- 이익섭, 「국어학개설」, 서울, 학연사, 1993.
- 이익섭,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이인모, 「새 문법」, 서울, 영문사, 1968.
- 이인모, 「재미나고 쉬운 새 조선 말본」, 서울, 금룡도서(주), 1949.
- 이희승, 「새 문법」, 서울, 일조각, 1968.
- 이희승, 「새 중등 문법」, 서울, 일조각, 1966.
- 이희승, 「중등 문법」, 서울, 박문출판사, 1956.
- 이희승, 「초급 국어 문법」, 서울, 박문출판사, 1949.
- 장하일, 「중등 새 말본」, 서울, 교재연구사, 1947.
- 장하일, 「표준 말본」(2권), 서울, 종로서관, 1949.
- 장하일, 「표준 말본」, 서울, 향린사, 1956.
- 전학진, 「모범 중등 문법」, 서울, 일지사, 1966.
- 정렬모, 「고급 국어 문법 독본」, 서울, 고려서적(주), 1948.

- 정렬모, 「신편 고등 국어 문법」, 서울, 한글문화사, 1946.
- 정렬모, 「초급 국어 문법 독본」, 서울, 고려서적(주), 1948.
- 정인승, 「표준 고등 말본」, 서울, 신구문화사, 1956.
- 정인승, 「표준 문법」, 서울, 계몽사, 1968.
- 정인승, 「표준 중등 말본」, 서울, 신구문화사, 1956.
- 정인승, 「표준 중등 말본」, 서울, 아문각, 1949.
- 정인승, 「표준 중학 말본」, 서울, 대동당, 1967.
- 조선어 연구회, 「정선 조선어 문법」, 경성, 박문서관, 1930.
- 주시경, 「고등 국어 문전」, 1909년경 유인물.
- 주시경, 「국어 문법」, 경성, 박문서관 초판, 1910.
- 주시경, 「국어 문전 음학」, 경성, 박문서관, 1908.
- 주시경, 「대한 국어 문법」, 유인물, 1906.
- 주시경, 「말의 소리」, 경성, 신문관, 1914.
- 주시경, 「소리갈」, 유인물, 1906.
- 최광옥, 「대한 문전」, 한성, 안악면학회 초판, 1908.
- 최현배, 「새로운 말본」, 서울, 정음사, 1968.
- 최현배, 「우리 말본」, 경성,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초판, 1937.
- 최현배, 「우리 말본」, 첫째 매, 경성,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1929.
- 최현배, 「조선어의 품사 분류론」, <조선 어문 연구>(연희전문학교 문과 연구집 1), 1930. 경성,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수록.
- 최현배, 「중등 말본」(3권), 서울, 정음사, 1957.
- 최현배, 「중등 말본」, 서울, 정음사, 1967.
- 최현배, 「중등 조선 말본」, 경성, 동광당 서점 초판, 1934.
- 최현배, 「중등 조선 말본」, 서울, 정음사, 1948.
-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문교부 학교문법 통일에 따른 중학 국문법」, 서울, 1964.
-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문교부 학교문법 통일에 따른 고등 국문법」, 서울, 1964.
- 허웅, 「문법」, 서울, 과학사, 1979.
- 허웅, 「표준 문법」, 서울, 신구문화사, 1966.
- 허웅, 「표준 문법」, 서울, 신구문화사, 1968.
- 홍기문, 「조선 문법 연구」, 서울, 서울신문사, 1947.
- 홍기문, 「조선 문전 요령」, <현대 평론> 1~5(1927.1.20~1927.6.1) 수록.

<Abstract>

Study on formation of Korean school grammar
:based on the unification middle and high school Korean grammar

Cheong, Dallyoung
(Dae-jin University)

This paper discusses the formation of a unified Korean school grammar that middle and high schools utilize. First, the paper presents the goals and the need for the unification of Korean school grammar and provides a backgrounder on such unification and its current stage. Furthermore, the paper examines the system and content of the Korean school grammar scheme. After the scheme took into effect, the contents of middle and high school Korean grammar currently being used have undergone several revisions and amendments.

This paper, however, does not cover the contents that had changed after the Korean school grammar program was formulated. This is because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help formulate a unified the school grammar scheme of Chinese classics the current topic of Chinese classics education by investigating the strenuous process of formulating a unification scheme for Korean school grammar.

주제어: 국어 문법, 학교문법, 학교문법 통일, 품사, 문법용어, 문장성분, 문장의 종류
Korean grammar, School grammar, Unification of school, grammar, parts of
speech, grammatical terms, components of sentence, types of sentences.

논문 접수 : 2005. 10. 31. / 게재 결정 : 2005. 11. 26.
